

여성노숙자 쉼터 2곳 개설

우리는선우 목동에 '화엄동산' 11월9일 개원 본동복지관 '희망의 집' 마련 일자리도 알선

경제한파로 인한 여성실직노숙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선우와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 여성실직노숙자를 위한 쉼터를 개설해 이북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쉼터는 IMF사태 이후 남성실직노숙자를 위한 쉼터는 잇따라 개설돼 왔지만 여성실직노숙자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사회적으로도 미미한 상태에서 개설돼 더욱 의미가 깊다.

우리는 선우(공공대표 남지심 박광서)가 11월 9일 개원을 예정으로 준비중인 쉼터는 목동 화엄

동산, 양천구 목동 730-2에 위치한 화엄동산은 75평 규모로 상담실, 숙소, 화장실, 목욕탕, 주방 및 식당으로 구성되며, 입주정원 40명이다. 이용대상은 30세~60세 이하의 실직여성으로 재할의 지를 가진 자여야 한다. 이곳의 1회 이용기간은 20일 이내로, 저녁 7시~아침 8시까지 13시간동안 이용할 수 있다.

화엄동산은 단순한 숙식제공뿐 아니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민간용역 업체, 노동부 취업전선망 등을 최대한 활용해 여성노숙자들의 취업과 재할을 도울 계획이다. 또 각 사할의 공양주 모집 및 각종 불교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펼칠 예정이다.

이제앞서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희숙)은 26일 수용인원 10명 규모의 여성실직노숙자 쉼터 '본동 희망의 집'을 열었다.

희망의 집은 복지관 지하강당을 개조해 2개의 방과 샤워실, 화장실, 식당등을 마련하고 저녁 6시~아침 9시까지 운영한다. 또한 구청과 동사무소를 연결 여성실직자들에게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를 알선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도 동참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opia.com)

29일 호주 남천사서 WFB-WFBY 개최

제20차 세계불교대우의회(WFB), 제11차 세계불교청년회(WFBY) 대회가 '불교와 21세기'에 있는 도전'을 주제로 10월 29일부터 11월3일까지 6일간 호주 시드니 율령공 해안의 남천사에서 공동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WFB, WFBY의 세계교체와 21세기를 향한 불교의 인류 구원과 자기 발견에 획기적인 메시지를 찾는다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WFB 한국본부 박동기회장, WFBY 한국본부 이치란회장 등 이번 총회에 참가할 한국대표 30여명은 이번 총회에서 △한국불교 홍보 △분부원인 선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opia.com)

대만에 세계종교박물관 심도스님 원력 내년 준공

대만에 종교교류 및 종교체험을 할 수 있는 세계종교박물관이 들어선다.

타이페이시 용허에 건립되고 있는 세계종교박물관은 심도스님(대만 영축산 무생도량 창건주)이 종교를 바로 알고 종교간의 대화와 접촉을 통해 종교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원력으로 추진 중인 주상공공 건물로 99년 준공 예정이며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또 현대사회의 도덕적 타락으로 빛어지는 혼란현상을 극복하고 종교적 힘으로 사회를 정화하고자 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세계종교박물관에는 각 종교의 지혜를 보여주는 '주제전시관', 종교예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종교예술관', 대만부터 문화를 소개하는 '대만종교관',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정토선경의 '화엄세계'가 만들어진다. 이와함께 과학기술·오라체현의 '과학기술관', 품으로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극장관', 종교사적의 보고인 '불교정보센터', 자아탐구 및 관법을 할 수 있는 '명상관', 세계종교관을 한눈에 보여주는 '종교박물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세계종교박물관은 모든 종교의 우주관, 기원, 교의, 의법, 수행방법, 포교, 생활방식등을 망라하며 문물의 수집진열 및 정보 연구발달에 많은 성과를 상세히 소개하기 위해 10여년간 각종 종교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수집해 오고 있다.

심도스님은 오는 29일~11월 2일의 일정으로 귀국한다. 김원우 기자 (wkwim@buddhopia.com)

새 회장 선출때까지 두회장 직대 체제로 중앙신도회 23일 운영위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3일 20명(위원 8명 포함)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어 홍옥진, 김한곤 부회장을 공동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직대체제는 새 회장 선출 때까지 유지된다.

중앙신도회는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승재건 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키로 했다. 정성문 기자 (swjung@buddhopia.com)

표창사, 폐교인수 자연학습장 활용

표창사(주지 신하)는 18일 96년 폐교 후 방치돼 철거위기에 놓인 사지경 분교를 인수,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표창사는 해발 8백m에 위치한 '하늘이라 첫 학교'로 불리는 사지경 분교를 학생들의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만들고 이 일대를 청소년들의 호연지기와 민족의 얼을 심는 교육장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도필선 기자



○동국대 법대 후원의밤 행사가 21일 9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교계 법조인재양성 나섰다"

동국대 법대발전기금 2억8천만원 모아

"법대발전은 동국대발전, 동국대발전은 불교발전"이라는 슬로건으로 법조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적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동국대 법대발전기금'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21일 동국대90주년기념관 그릴에서 교계 스님 재가 지도자를 비롯한 법조계 등 각계 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연가법대학장은 "법과대 동문들이 중심이 되어 후원을 발족하여 고시장학과 과 사설학원 등 법과대학 발전에 사용될 재원확보에 힘을 합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연택 법과대학 후원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오진 모듬창회장의 인사말 송석구총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황명수 동대총동맹회장, 서문각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주해란씨 등이 축사를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총 2억8천만원의 발전기금이 모아졌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opia.com)

교계 대북지원 13억3천여만원

문화부 국감자료... 불교TV 누적적자 221억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종교단체가 한국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지원한 성금(물품 포함)은 1백29억3천3백여만원이며 이 가운데 불교계는 총 13억3천5백51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종교단체의 대북지원 규모는 불교 13억3천5백51만원, 개신교 69억5천여만원, 천주교 44억2천2백53만원, 원불교 2억5천5백51만원, 천도교 2천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95년 출범한 불교TV의 3년간 누적적자액이 2백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가 국회 문화관광위 김승희의원(국민회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일하게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39소공을 제외한 28개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업체의 전체 누적적자액은 6천5백63억원에 이르렀다.

케이블TV 가입가는 7월 현재 유료가입 82만6천 가구, 무료가입 25만7천 가구로 집계됐다. 정성문 기자

뉴스 & 뉴스

건철지불 통도사 소장

제23회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상기호씨가 수상작 건철지불을 21일 조계종에 기증했다. 상씨는 "큰 상 받은 작품이고 부처님 뜻이니 좋은 곳에 모셔주겠다고 생각했다"며 기증 동기를 밝혔다.

현재 서울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전시되는 건철지불은 10월말까지 전시가 끝나면 약간의 손질을 거쳐 11월 초 통도사 박물관으로 보내진다. 강지연 기자

'21세기 불교...' 세미나

21세기 불교연합회(회장 법조스님)은 11월5일 오후 2시 하림각 신관 2층에서 '21세기 불교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하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이 '21세기 불교와 복기', 송석구 총장(동국대)이 '21세기 불교와 동양사상'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도필선 기자

동국대 불사법 세미나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윤운진)은 개인 1주년 및 동국대 경주캠퍼스 개교 2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세미나를 28일 오후 1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호관 소강당에서 개최한다.

'21세기 불교'는 무엇보다가를 주제로 △21세기의 문명과 불교(강건기·전북대) △21세기에서 유교의 진로와 과제(김정태·서울대) △오노와 내일의 기독교(정양모·서강대) 등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0561)770-2506 김정은 기자

사실사암연 후원회 준비

대한불교사실사암연합회(회장 종후·노직사 주지)는 22일 본회 사무실에서 제5차 간담회를 갖고 후원회를 조직키로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사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후원회 조직, 현회장 종후스님을 제19대 조계종 직할교구 총회의원으로 추대키로 결의했다. 이 밖에도 간담회에서는 활동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회원배가 방안, 홍보및 교류현황화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임연태 기자(ytlm@buddhopia.com)

대운사서 초의문화제

제7회 초의문화제가 대운사 일지암과 초의문화제 집행위원회의 주관으로 31일부터 11월1일까지 대운사 초의관에서 개최된다.

문화제는 차음악제, 무다대회, 램다시방, 차 관련 사진 전시회, 초의스님 회화 한국화그리기 등으로 진행된다. 도필선 기자

아상회 경주남산 답사

부산 동아대 불교학생회 동문회 아상회(회장 이양환)는 18일 회원가족 1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주남산을 답사했다. 임연태 기자

건봉사 복원 '부실의혹'

기단석-석축 훼손불구 유구정비만

건봉사 복원사업이 건물복원보다는 유구정비에만 치우치는데다가 그동안 축조한 기단석과 석축 등이 부서지고 있어 부실의혹을 사고 있다.

한국전쟁 때 전소된 건봉사는 90년부터 99년까지 모두 13억3천여만원을 들여 복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유구정비사업은 하는 곳은 대응전지 극락전지 낙사암지 팔상전지 등 4개 구역 6천5백여평이다. 고성군은 지난해까지 7억6천여만원으로 지표조사와 팔상전지 낙사암지 극락전지를 정비했으며 올해 3억으로 낙사암지 연못과 주변 정비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축조한 기단석과 석축쌓기가 네모형으로 마을모형인 기존공법과 달라 원형복원이 안되고 있는데다가 사지정비보다 건물복원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사찰측의 반대로 19일 현재 올해 정비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찰 측은 내년도 복원사업으로 군이 도에 지원요청한 낙사암지 건물 7동과 극락전지 건물 8동 복원사업비 7억원의 조속한 해결과 올해 유구정비 사업비의 건축물 복원비로의 전환도 요구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opia.com)

목탄

“청화스님의 법회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는데요” “어디로 연락하면 스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 청화스님을 면담치에서라도 보고, 법문을 듣고 싶다는 법문을 물어오는 불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통씩 걸려온다. 이런 불자들의 바람을 알기라도 한 듯 지난 9일부터 11월 초까지 전국의 사찰과 신성한터 등에서 앞다투어 초청법회를 준비해 놓고 있다.

스님은 지난 봄 미국 팜스프링의 금강선원에서 잠시 귀국해 인연있는 사찰에서 법문을 하고 떠났다. 당시에 도 신문사에서는 스님의 법회를 묻는 불자들의 전화가 꽤 많이 걸려왔었다. 스님이 미국으로 돌아간 후 국

성스런 불자들이 “요즘 같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스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이 자주 법회, 법문도 들을 수 있는 법연을 베풀어 달라”며 스님을 즐겼고, 성화에 뜻겨워 지난 9월 스님은 다시 귀국했다.

이렇게 불자들이 유독 청화스님을 찾는 이유는 무얼

까. 스님이 미국에 가시기 전부터 스님의 법회라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한 불자는 말한다. “화려하기보다는 소박하고, 웅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차분한 스님의 법회에 가면 진실한 수행에서 우리나라는 참 수행자의 빛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또 새로운 발심을 하게

만들다”라고. 그러나 불자들이 이끌어야 할 한국불교의 중심 견지동 45분지는 요즘 이런 불자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이 분주하다. 3선 출마는 된다 안된다. 교계 언론은 선거분위기와 과열 방지를 위해 협조해 달라. 이곳 저곳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이 열리고, 어떤 후보가 당선될까를 자문질 하는 이들도 적

지 않다. 그러나 말만 번드르 하고, 권력만을 최고로 아는 세속정치인들에 신물이 난 불자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가지! 현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진적으로 이끌어 줄 참 지도자의 깨달음의 법문이다. (ejlee@buddhopia.com)

화제의 책

“귀신의 병은 100% 낫는다.”

영혼을 천도하는 연화심보살의 영능력 세계!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기를 통해 저승길로 인도하는 연화심 보살의 영능력 세계!

뚜렷한 병명 없이 아픈 사람들이나 신이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하나 대지 않고 치유하는 신통력을 지닌 연화심 보살

“기를 모으면 영혼을 부를 수가 있는데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생에서 지은 업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나죠. 지수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혼들을 사후세계로 보내주면 혼령이 붙어서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씻은 듯이 낫게 됩니다.”

김점기 지음

신국판 240쪽/값 6,000원

도서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4-5호 중앙B/D 출판 전화: 3474-3521(영업부) 팩스: 3474-3524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자연향) 테크팩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소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권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약용식물의 성분인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낸다. 향비는 자연향인 페르니드그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을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한다. 태아가 임부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유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불순이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워리리움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증상(○)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장이 예민하거나 신경질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위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불규칙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땀이 많이 났다
- 11 배나 목뭉근처에 신포 현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몸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땀나니 감성신으로 고통을 당한다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